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어

知恩者(지은자) 當發善提心(당발보리심)
報恩者(보은자) 亦當發一切衆發善提心(역당고일체중생발보리심)
“무릇 은혜를 아는 자는 마땅히 보리심을 일으키고, 또한 은혜를 갚는 자는 마땅히 일체중생을 가르쳐서 보리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는 마음을 등불을 환히 밝히고 보리심을 일으켜 깨달음의 등불을 간직하기를 서원합니다.
報恩(보은)의 마음을 가진 자는 응당 은혜 갚는 행동을 실천하는 법입니다.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제일



의 일이 한 가지 있으니,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대로 쉬임 없이 실천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크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실천대로 행하는 자는 능히 부처님의

깨달음의 등불을 간직하시길...

을 일으키고, 또한 은혜를 갚는 자는 마땅히 일체중생을 가르쳐서 보리심을 일으키게 합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는 마음을 등불을 환히 밝히고 보리심을 일으켜 깨달음의 등불을 간직하기를 서원합니다.
報恩(보은)의 마음을 가진 자는 응당 은혜 갚는 행동을 실천하는 법입니다.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제일

은혜를 갚는 길이 될 것입니다. 수행의 등불로 은혜갚는 마음과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합시다.
은혜갚는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날을 뜻깊게 맞이하시길 바라며,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보리심을 일으켜 깨달음의 등불을 간직하시길 서원합니다.
총기32년(불기2547년) 부처님 오신날
불교 총지중 종령 록 정 합 장

부처님 오신날 봉축사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며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지가 벌써 1600년이 넘었습니다



불교계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와 승직자들, 일반 불자들이 청정한 계행과 모범적인 생활로 사회인들의 존경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가족만 잘되게 해달라고 기

부처님의 근본정신을 되살려 화합과 행복을...

다. 그동안 불교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서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외세사조의 유입으로 전통적인 불교는 이제 그 주인의 자리를 다른 종교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하고 조상들이 물려주신 불교유산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불교는 갈수록 쇠퇴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 불자들은 이 점을 깊이 반성해야겠습니다. 불교가 위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은 외부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모든 불자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원하지-팔고-모든 중생들 아니 바로 곁에 있는 남들도 서로 화합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원하는 불자가 되고, 부처님의 근본정신을 되살려 지혜를 개발하고 널리 이웃에 지혜를 베풀 줄 아는 참된 불자가 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이 땅에 불교정토를 하루 빨리 건설하도록 다 같이 용맹정진합시다.
음마니반메움!
음마니반메움!
총기32년(불기2547년) 부처님 오신날
불교총지중 종령 록 정 합 장

종단화합과 발전방안 모색

제61회 춘계강공회, 도제양성 및 사회복지지원강화

제61회 춘계강공회가 전국사원 스승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통리원에서 4월 22일~24일(2박3일)동안 개최되었다. “종단화합과 종단발전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강공회는 재단 이사회, 원의회, 중앙총의회, 승단총회, 합동회의순으로 진행되었다.



제61회 춘계강공회 개강발사에 동참한 전국 스승님들.

이번 강공회에서는 전국사원 스승님들이 일선교회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어려움에 대해 상호토론하고 발표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개강식에서 총지중 종령(록정)에하는 부처님 말씀 중에서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데서 생기느니라.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물욕에서 생기며, 허물은 경망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하는데서 생기느니라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림자를 보지 말고, 맑고 아름다움을 볼 것이며, 입을 조심하여 실없는 말을 하지 말고, 착한 말, 부드러운 말, 고운 말을 언제나 하라”는 마음 다스리는 글을 설하고 “화평하고 화합하여 입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되고 진실한 말을 행하고 항상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참회하고 선행을 행하라는 여구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행동하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총지중 통리원장(범공)은 우선 부처님 오신날 행사 준비로 바쁜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강공회에 참석하여 주신 전국 스승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통리원장 취임 후 내실을 기하리라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지만 이번 강공회를 통해 스승님들의 조언과 지혜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재단이사회에서는 구관성사 및 구흥국사 토지를 매각처리 할 것을 결정하였다.

원의회에서는 총기 31년 통리원, 전당건설, 유지재단 결산을 심의·결의하고, 신규승직자의 초봉 산정시 종무원의 경력과 학력의 인정에 관하여 경력과 학

력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할 것을 결의하였다.

중앙총의회에서는 사감위원인 법성종 사로부터 총기 31년 통리원결산감사의 결과를 보고받고, 결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였다. 또한 사감원장과 사감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종령님께서 임명한 법성종사를 사감원장에 인준하고, 지공정사, 지광정사를 종의회 사감위원으로 위촉하였고 원승 대정사를 종의회 부의장으로 선출하였다.

또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종단의 중무인 및 승직자, 교도자녀들이 종단에 귀의한다는 조건하에 원의회의 결의를 거쳐 박사과정까지 모든 학비를 제공하는 도제양성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심의하고 결의하였다.

승단총회에서는 결원된 종의원으로

수증원 지수, 원승 대정사, 수현 정사를 종의원으로 선출하였고, 정사님들의 정복을 양복에서 개량복으로 교체하여 생활의 편리함과 차별성을 부각하고, 총복 고산에 위치한 수련원을 교도들을 위한 양로원으로 개원하고, 보살들을 위한 보살 수계식을 9월경 만보사에서 개최하고, 교화활성화 차원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종단적 지원을 강구하기로 결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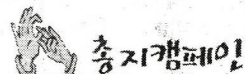
한편 2박3일 동안 진행된 춘계강공회를 통해 종단 스승님들은 교화 활성화와 종단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일부의 안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집행부에서는 제안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죽비소리

만약 참으로 수도하는 사람일진대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나니 만약 바른쪽에서 타인의 허물의 보면 자기의 허물이 곧 왼쪽에서 돌아오나니 다만 스스로 그르케

보는 마음을 고쳐 번뇌를 타파하여 제거하고 맑고 고운것이 마음에 걸리지 아니하면 길게 두 다리를 뻗고 누우리라.

(육조선사의 말씀 중에서)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들 한다. 아마도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 19일 성인의 날 등이 5월에 들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새삼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 하지 않아도 개개인의 삶에서 가정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모두들 잘 알고 있다.

가정은 사회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조직이다. 그렇다면 그 사회의 건전한 정도를 알려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조직인 가정을 살펴보면 될 것이다. 그래서 예부터 많은 현자(賢者)들이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家和萬事成 이라던지 혹은 修身齊家 治國 平天下 같은 옛 문구들이 그 좋은 예일 것이다. 또 부처님 말씀인 법화경에도 장자공자라는 비유가 있는데 집밖 어디엔가 있다고 믿는 신천지를 찾아 떠난 아들이 결국 가족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 모든 것이 가정은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처럼 사회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많은 사람들은 부모들로부터 위안을 받고, 형제로부터 힘을 얻고 배우자와 희망을 나누고, 자녀들로부터 용기를 얻는다.

현재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부간의 결별이 가정의 붕괴를 초래하는 주범으로 통계적으로 산출되고 있다.

2002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결혼하는 4쌍의 부부 중 한 쌍이 이혼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구미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다. 그래서 요즘 어린이 시절에 수용되는 아동의 실태를 보면 부모가 이혼하면서 어린이가 갈 곳이 없어서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가 시설 수용 아동의 40%가 넘는다고 한다.

부모와 자식간의 친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정서로 볼 때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혼사유가 대부분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하니 참으로 여겨주지않다. 시절이 어려울수록 가족들은 더욱 서로를 꺼안고 격려하면서 난국을 이겨나가야 할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이유가 되어 가정이 붕괴되니 개탄스럽다.

5월 가정의 달에 부처님 오신날이 같이 들어 있는 것은 결코 우연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나친 생각일까. 무량수경에 보면 부자(父子)간에, 형제간에, 부부간에, 친족간에, 항상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여 질사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안색은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오늘 깊이 생각해 볼 법하다.

불교총지중은

보문총체총덕(普門總體總德)의 이불(理佛)이신 법신 비로자나불을 교주로 하고 관세음보살의 본심진언인 육자대명왕진언 음마니반메움을 본존으로 모시며, 주옥같은 진언(眞言)과 정확한 인계(印契), 엄격한 의례(儀軌)와 사종수법(四種修法)을 비롯하여 유가삼밀 관행법으로 진언을 염송함으로써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한 진언의 세계에서 즉신성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사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불자로서의 역할을 상기하자

부처님 오신날이 1975년 국가의 공식적인 공휴일로 제정되어 이 날을 경축하고 기린지도 어언 30년이 가까워 온다. 돌이켜보면 사월초파일은 연등행사와 더불어 천년이 넘게 행해진 민족의 대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이 공휴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이 있었다.

한국에 전래된 역사가 백년도 안된 기독교의 축제일은 일찍부터 제정되어 온 국민이 축제의 열기로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정신적 지주였다고 자부해 온 불교의 축제일은 뒷전에 밀려 겨우 70년대에야 공휴일로 제정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말의 사대는 우리나라의 종교계 관도를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척도로서 현재 불교가 민중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반성할 계기가 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불교는 석가모니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이다. 시대와 지역을 달리하면서 외양적인 모습은 조금씩 달라져왔지만 내면을 관통하는 근본정신은 연기(緣起)와 공(空)에 바탕을 둔 지혜와 자비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불교의 합리적인 태도는 불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불교의 정신은 아시아라는 틀을 벗어나 서구인들에게도 크게 어필하고 있다. 이러한 예로서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였던 프랑스에서는 이미 불교 인구가 기독교를 앞섰다고 한다.

불교에 생소할 것 같은 북유럽에서도 지식인들 사이에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붐이 일어날 정도라고 한다. 또한 현대의 뛰어난 사상가나 철학자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불교의 교리를 응용하여 철학적 바탕으로 삼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불교가 미신과 맹신을 강요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 합리성에 바탕을 둔 참된 진리로서 인류의 무명을 밝혀 줄 가르침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여 우리나라의 불교교세는 갈수록 위축되어 이제는 불교도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야 사회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 땅에 불교가 전래된 지 1600여 년, 불교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였음은 수많은 불교유적과 문화재를 보아도 익히 알 수 있는 일이며 나라의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불교도가 합심하여 이를 극복하였다.

불교의 뛰어난 교리와 선현들이 물려준 이러한 후광효과를 살리지 못하고 오늘날 불교가 이렇게 박대를 받게 된 데에는 우리 불자들의 뼈를 깎는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불교가 푸대접을 받는 근본 원인은 불교의 교리가 나빠서도 아니고 수행환경이 나빠서도 아니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뒷전에 모셔두고 자리싸움, 이권 다툼에 날을 새며 잣밭에만 관심을 가지는 승직자들이 있는 한 불교가 민중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세속에 초연하라는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불육과 감투에 눈이 어두워 수행은 팽개치고 얼굴 내미는 데만 앞장서는 한 불교계의 발전은 요원하고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 또한 신심을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불자들 스스로 자질을 높임으로써 욕석을 가려내고 올바른 복전에 복의 씨앗을 심을 때만이 불교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 혼자만 잘되자는 기복신앙에만 매달려 부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욕심만 추구하는 그런 불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행사도 중요하지만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기하면서 자신과 주위를 돌아보고 불교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부처님의 뜻을 받드는 중요한 일일 것이다.

법공 통리원장 종단간의 화합으로 불교발전 제안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종단협 사무총장과 환담



법공 통리원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환담하고 있다.

조계종 통리원장(법공)은 4월 16일 오후 4시 조계종 총무원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환담을 가졌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총무원에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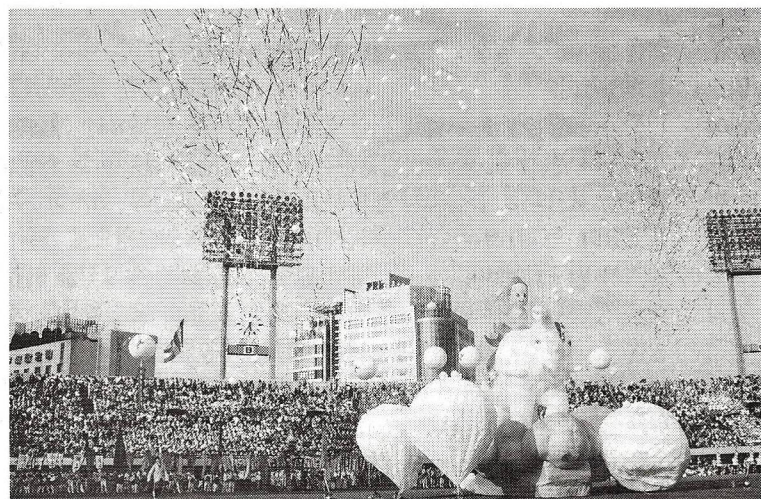
또한 총지종 통리원장 법공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에 취임함에 진심으로 축하하며 인사정책에 대한 스님의 개혁성과 중무행정의 변화를 추구하며 한국 불교를 세계속에 꽃피우려는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며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불교를 발전시키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환담은 총지종 통리원장(법공)이 바쁜 일정으로 인해 법장스님의 취임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늦게나마 축하를 전하고 종단간의 화합과 단결로 한국불교를 세계속에 꽃피우는데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목적에 의해 추진되었다.

한편 총지종 통리원장(법공)은 조계종 총무원장(법장)과 환담 후 한국불교 종단협 사무총장(홍과)과 남산 타워호텔에서 환담을 하며 한국 불교의 발전을 모색하며 종단간의 상호협력으로 불교를 포교하고 발전시키자고 제안하였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다채로운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서원하는 불자들.

불기2547년(총기32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가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모든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해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다채롭게 진행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의 번뇌와 고통을 해탈하여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참살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땅에 나부신 참 뜻을 기리고, 전국의 모든 불자들이와 국민들은 자신들이 소원하는 바램을 연등에 달아 불을 밝혀 훗날 자비의 광명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발원한다.

한편 총지종은 5월 4일 봉축위원회 주최로 연등행사와 문화축제로 정착된 봉축행사를 5월 3일 저녁에는 조계사 앞에서 전자축제를 시작으로 5월 4일 거리행사가 우정국로에서, 어울림 마당이 동대문 운동장에서, 동대문에서 조계사 앞까지 거리행진이 진행된다. 또한 부산에서는 5월 4일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지역 모든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연등축제 한마당 행사를 진행하며, 전국 각 대도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행사를 마련하여 봉축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총지종은 5월 4일 봉축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연등법회에 참가하

고, 총기32년 5월 8일 전국 사원에서 모든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를 진행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한다.

종조전 조성공사 착공

총지종의 위상정립과 정체성 확립

종조전 조성공사가 4월 16일 총지사 2층에서 총지종 통리원장(법공), 총지사교도, 총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략하게 지진봉사를 한 후 착공을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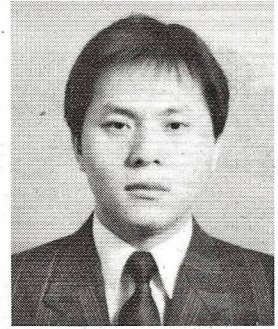
이날 봉사에서 총지종 통리원장(법공)은 "종조전은 우리종단의 법맥을 계승하고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립하며 종단의 오랜 숙원 사업인 만큼 정성을 다해 공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하였다.

총지종은 4월 월초불교간담회 전국 사원에서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공공서원에 추가하여 종조전 조성봉사의 원만을 기원하였으며, 총지사에서는 총지사 2층에 종조전을 조성하기 때문에 스승님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특별봉사를 마련하여 종조전 조성원만 봉사를 하였다. 한편 종조전 조성공사는 2개월 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며, 6월 중순쯤에는 총지종의 법맥을 계승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종조전이 탄생하여 총지종의 위상확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법장원

법장원의 설립목적은 「종령의 직무 중 사법(司法) 및 전법(傳法)에 관한 연구 및 그 전담기구 설치하여 법통의 존엄성과 종법의 창달 및 수호를 통하여 종지(宗旨)를 빛내고 종단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자 함에 있다. 설립목적에서 법장원의 기능과 역할을 알 수 있다. 사법 및 전법에 관한 연구는 곧 종단의 교상과 사상에 대한 연구를 의미한다. 그런만큼 법장원의 역할은 아주 막중하다. 종단발전의 이튼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물론이요 대안을 제시하는 핵심기관

원의 가치와 그 효과는 무한한 것이다. 법장원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한 만큼 종단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더 따뜻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당장의 성과유무에 따라 일언일타하는 근시안적 자세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법장원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전문연구기관을 깊이 인식하였으면 한다. 업무특성상 단시일 내에 결과를 나타낼 수 없다는 점을 재삼 인식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연구란 것이 많은 시간



법경(법장원 연구원)

이러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밀교의 교리연구는 말할 것도 없고 종조연구와 종학의 이론적체계 등은 바로 종단의 교상과 사상의 정립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법장원의 모든 연구활동은 종단의 교리와 수행체계의 바탕을 튼튼히 하는 자양분이라 할 수 있다.

필요로 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역할과 기능, 결과와 성과에 대해 조급하고 성급한 기대와 평가는 자제하였으면 하는 생각이다. 또한 연구의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도 자유로워야 한다. 종단 입장에서 꼭 해야

할 연구는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종단과 상관없는 것이라하여 연구범위에서 아예 배제시킨다면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학문적 편협성을 드러내고 말 것이다. 연구범위는 폭넓고 다양해야 하며,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비난과 질타, 반대를 위한 반대이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연구는 어디까지나 연구라는 점을 깊이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당연히 건전하고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법장원에서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그러나 일이 많다고 하여 바쁘게 서둘러 일을 그르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 오히려 더 디터라도 차근차근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

법장원 활동방향에 대하여

사법 및 전법에 관한 일체의 업무, 교의(敎義)의 연구 및 개발, 법의의식(의례법 포함)의 연구·조정·개정 및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업무, 영경 및 교전(敎典), 기타 간행물 발간에 관한 연구 및 업무, 전법(傳法)·관정(灌頂)·수계(授戒)에 관한 연구 등 법장원의 관장업무는 수없이 많다.

문제는 이러한 업무들을 어떻게 손조롭게 잘 진행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아무리 할 일이 많고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고 손 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내지 못한다면 유명무실한 기관일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조그마한 연구 성과를 통해 종단 발전의 시금석 역할을 다하게 된다면 법장

원 연구는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종단과 상관없는 것이라하여 연구범위에서 아예 배제시킨다면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학문적 편협성을 드러내고 말 것이다. 연구범위는 폭넓고 다양해야 하며,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비난과 질타, 반대를 위한 반대이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연구는 어디까지나 연구라는 점을 깊이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당연히 건전하고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법장원에서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그러나 일이 많다고 하여 바쁘게 서둘러 일을 그르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 오히려 더 디터라도 차근차근 진행시켜 나갈 계획이다.

알림방

- 제61회 춘계강공회를 4월22일~4월24일 통리원에서 개최하였음
- 5월 4일 봉축연등법회가 서울은 동대문운동장, 부산은 부산역 광장에서 16:00개최됨.
- 총지종의 많은 교도들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월 8일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가 전국사원에서 오전10:00에 봉행됨

우리 모두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2003년 3월 17일부터 2003년 4월 17일까지

백월사 강대길 10,000	통리원 무명씨 10,000	해정사 수증원 40,000	실보사 이순옥 5,000	밀인사 정정희 5,000
실지사 관음행 10,000	통리원 무명씨 10,000	밀인사 신대식 10,000	수인사 이순자 5,000	밀인사 정쾌자 10,000
실보사 구정옥 30,000	해정사 무명씨 10,000	밀인사 신대의 10,000	밀인사 이연수 10,000	해정사 조숙자 5,000
해정사 권영숙 10,000	무명씨 5,000	밀인사 신동희 10,000	개천사 이영희 5,000	조항숙 50,000
수인사 권오남 10,000	무명씨 10,000	관음사 신막심 5,000	실지사 이옥분 10,000	실지사 주영재 3,000
백월사 김강미자 5,000	무명씨 10,000	정각사 신연자 10,000	정각사 이유희 35,000	벽룡사 지신주 5,000
지인사 김기백 10,000	무명씨 10,000	정각사 신옥필 5,000	총지사 이인성 20,000	지심행 10,000
밀인사 김덕배 10,000	무명씨 10,000	신효균 10,000	밀인사 이재호 5,000	진관사 10,000
실지사 김복산 10,000	무명씨 10,000	해정사 심미자 5,000	운천사 이형란 10,000	백월사 차노병 10,000
수인사 김봉기 10,000	무명씨 10,000	안병진 10,000	밀인사 이혜성 10,000	실보사 차쌍수 10,000
운천사 김부자 10,000	무명씨 10,000	양숙자 20,000	관성사 이혜원 5,000	정각사 최봉순 20,000
정각사 김애자 5,000	무명씨 10,000	여래심 10,000	개천사 이희권 10,000	실보사 최상관 50,000
해정사 김완식 5,000	무명씨 10,000	벽룡사 오미순 10,000	밀인사 임동수 5,000	실지사 최영해 5,000
정각사 김점남 10,000	무명씨 10,000	우담바라 30,000	지인사 임순옥 10,000	정각사 최윤 20,000
법천사 김정숙 5,000	무명씨 10,000	성화사 우담바라 100,000	해정사 자성신 5,000	실지사 최윤 10,000
법화사 김정순 20,000	무명씨 10,000	수인사 원봉 10,000	실지사 장근도 10,000	관성사 최혜선 10,000
정각사 김정연 40,000	무명씨 10,000	정각사 음원숙 10,000	지석사 장순점 10,000	실지사 최환 10,000
만보사 김정희 15,000	무명씨 10,000	이계순 5,000	만보사 장태관 20,000	해정사 해보심 20,000
수인사 김진 10,000	무명씨 10,000	이기섭 20,000	지석사 전총기 10,000	실보사 혜암 50,000
밀인사 남방금 5,000	무명씨 10,000	정각사 이란이 10,000	실지사 정정자 5,000	관성사 훈순화 10,000
기로원 대관 10,000	무명씨 10,000	백월사 이민자 10,000	정각사 정금순 3,000	관성사 황성녀 10,000
기로원 대자행 10,000	무명씨 10,000	운천사 이병조 20,000	해정사 정길순 5,000	실지사 황순란 3,000
밀인사 무명씨 10,000	무명씨 10,000	실지사 이상배 10,000	지인사 정복수 10,000	만보사 권영진 10,000
벽룡사 무명씨 3,000	무명씨 10,000	정각사 이수임 5,000	실지사 정우석 5,000	
정각사 무명씨 10,000	무명씨 10,000	실지사 이숙례 3,000	관성사 정인순 10,000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의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에 소속사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지로번호: 7668610
우리은행: 122-177171-13-104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552-1083, 3452-7485

부처님 오신날 기획특집

석가모니부처님과 룸비니동산

음력4월8일은 부처님 오신날이다. 이 날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불자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이 날을 기리고 경축한다.

불교는 이제 아시아라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지리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며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다. 이러한 불교를 처음으로 여신분이 곧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불교(佛敎)'는 글자 그대로 '불(佛)의 가르침(敎)'을 의미한다. 불이란 불타(佛陀)를 줄인 말로서 산스크리트어 'buddha'에서 나왔다. 우리말로 '부처님'이라고 하며 요즘은 원래의 발음 그대로 '붓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붓다'의 원래 뜻은 '진리에 눈을 뜬 사람'이다. 불교에서는 붓다를 '스스로 깨달음을 완성하고 다른 사람도 깨달음에 이르게 하려는 자각각타(自覺覺他) 원'을 지니고 그것을 완성한 분'이라고 정의한다.

인간으로서의 최초의 붓다가 곧 석가모니부처님이다. 석가모니부처님을 석존(釋尊)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석가모니세존을 줄인 말로서 온 세상 사람들이 받들어 모실만한 훌륭한 분이라는 뜻이다.

2600여년전 북부 인도의 카필라국의 왕자로 태어나신 석가모니부처님(Gautama Siddhartha)의 본명은 고타마 싯다르타였다. 후에 출가하여 깨달음을 열고 '붓다'로 일컬어졌고, '석가족의 성자'라는 의미에서 '석가모니(釋迦牟尼)'라고 칭해졌다. '고타마'는 '가장 훌륭한 소'라는 뜻으로, 소를 신성시하는

당시의 일반적인 이름으로서 석가족의 별칭으로 추측되며 '싯다르타'는 '모든 것을 성취한 사람', 혹은 '일체의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석존에게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석가모니부처님은 생노병사의 윤회의 고리를 끊고 깨달음의 지혜를 얻고자 29세에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6년간의 처절한 수행 끝에 35세에 최고의 깨달음을 이루었다.

생노병사를 초월하는 열반은 고행과 쾌락의 양 극단에 의해서는 달성될 수 없음을 깨닫고 중도에 의하여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 그것이 곧 연기의 이치이며 사제와 팔정도 등의 체계로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석존의 깨달음은 신의 계시나 독단적 영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철저한 사유와 추론의 궁극에서 이루어진 깨달음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적용될 수 있

는 보편적 진리로서 오늘날에는 모든 종교의 으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석존의 가르침은 무조건 믿으라는 식의 맹신도 아니며 불합리한 것을 믿으라는 미신도 아니다. 항상 심신이 안온한 상태에서 지혜를 탐구하여 스스로 검증하고 체득할 수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서구인들에게까지도 받들어 모셔지고 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에 바탕을 둔 종교이기 때



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에게까지도 차별없는 사랑을 베풀다. 불교는 가르침을 전하는 과정에서 침략전쟁이나 종교전쟁을 한 예가 없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서양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 사이에서 불교의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교리가 모든 종교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석

가모니 부처님의 탄신은 합리적이고 평화적이며 지혜의 깨침에 의하여 인류의 무명을 밝히고자 하는 위대한 가르침을 인류에게 전해준 일대 사건이었다. 우리가 석가모니부처님의 탄신을 봉축하는 것도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다시 각성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석가모니부처님의 탄생지-룸비니>

석가모니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는 최초의 설립자인 녹야원, 정각을 이루신 붓다가야, 열반지인 쿠시나गर과 함께 불교의 4대 성지로 손꼽힌다. 흔히 룸비니동산으로 불리는 이곳은 현재 네팔의 영토에 속하며 인도 국경에서 약 20km 북쪽

필라성이 이 지방에 있었는데 룸비니는 그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석가모니부처님의 부친인 순도다나왕(정반왕)의 부인 마야데비왕비가 산달이 가까워지자 출산을 위하여 친정인 대바다하를 향해 길을 가던 중 그 일행이 카필라성과 롤리성 경계 부근의 룸비니동산에 이르러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 이 때 백화가 만발한 꽃동산을 거닐던 마야데비왕비가 꽃이 만발한 무수수 나무가지를 잡는 순간 오른쪽 옆구리로 아기 부처님께서 탄생하였다는 설화가 있다. 그러나 룸비니동산은 부처님이 탄생했던 장소라는 것 이외에는 그 어느 때도 크게 번창했던 적은 없었던 듯하다.

이곳을 방문했던 신라 혜초스님의 《왕오천축국전》에 의하면 8세기의 룸비니는 "숲이 무성하여 방향을

찾지 못해 헤메기 일쑤인데다 도적들 마저 출몰하는 곳이었다고 한다. 아마 불교의 중심권이 대승불교의 이동경로를 따라 인도에서 동북아로 옮겨짐에 따라 이 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발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1896년 인도 고고국에 의해 이곳이 발굴될 당시에 아쇼카왕이 세운 돌

1967년에 미얀마출신의 우탄트 UN사무총장이 이곳을 순례한 후 그 보존상태가 너무도 허술함에 충격을 받고 각 국에 도움을 호소하여 기금을 조성한 후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인근 일대의 정비작업과 개발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라 네 팔 측에 개발을 위한 기금이 전달되었지만 상당액이 사라져버려 개발 계획은 흐지부지되었다. 그러나 다행히 현재는 네팔당국과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개발사업이 다시 재개되어 세계적인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이다.

이곳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B.C.249년경 아쇼카왕이 이 성지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석주(石柱)와 함께 마야부인당의 탄생상과 구룡못 등이 있다. 그리고 룸비니의 서쪽으로 40km 지점에 사카족의 거성인 카필라바스투(카필라성)가 있다. 룸비니의 근처에는 세계 여러

는데 가운데 부분이 낙서 등으로 많이 훼손되어 있다. 석주의 머리는 말모양으로 추측되며 석주에는 '즉위 20년에 신들이 총애하는 인자한 왕이 이곳을 방문하고 경배했다. 이 곳에서 사카족의 성인인 붓다가 태어나셨기에'라고 새겨져 있으며, 돌로 된 붓다의 형상과 석주를 세웠다고 한다.

석주에는 또 "세존께서 이곳에 태어나셨기에 룸비니의 세금을 면제하고 생산물의 1/8만 납부하도록 한다."라고 새겨져 있다. 그리고 석주의 꼭대기 부분에는 '올라나반메홀'이 티벳문자로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훨씬 뒷날 누군가에 의해서 새겨진 것으로 보인다.

마야부인당(Mayadevi Temple)

마야부인당은 부처님의 탄생상이 조각되어 모셔져 있었는데 현재는 성역화 공사로 인해 탄생상이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옮겨 보관중이다. 이 탄생상은 태자의 어머니 마야부인이 바른손을 들어 무수수 가지를 잡았을 때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자가 태어나는 순간을 새긴 것이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손되어 그 곁에 새로 만든 탄생상이 함께 모셔져 있다.

구룡못

마야부인이 출산한 후 목욕을 했다고 알려진 구룡지는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는 "거울처럼 맑고 투명했으며 주위는 여러 가지 꽃들이 덮여져 있었다."고 한다.

룸비니의 주변에는 파괴된 탐과 사원의 흔적, 골동품들이 있으며, 약간 동쪽에는 두 개의 현대식 사원이 있는데 하나는 네 팔의 Theravadin불교위원회가 세운 것이며 다른 하나는 Sakyapa분파의 티벳 사원이다.

(자료제공: 법정원 연구원 회령)

인류의 마지막 희망-- 불교! 불교의 근원은 석가모니 부처님 불교는 지혜의 종교, 평화의 종교, 합리적인 종교

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곳에서는 설산 히말라야의 위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지금은 동산이라기 보다는 거의 평지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으며 발굴과 복원작업이 아직도 진행중이다. 룸비니라는 이름은 석존의 어머니 마야부인의 친정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한다. 약 2600년전 석가족의 왕국인 카

필라성이 이 지방에 있었는데 룸비니는 그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석가모니부처님의 부친인 순도다나왕(정반왕)의 부인 마야데비왕비가 산달이 가까워지자 출산을 위하여 친정인 대바다하를 향해 길을 가던 중 그 일행이 카필라성과 롤리성 경계 부근의 룸비니동산에 이르러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 이 때 백화가 만발한 꽃동산을 거닐던 마야데비왕비가 꽃이 만발한 무수수 나무가지

나라의 사원이 세워져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사찰과 중국 사찰도 세워졌다.

아쇼카왕 석주

불교를 옹호하던 아쇼카왕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룸비니동산의 위치를 알려주는 중요한 유물이다. 발굴 당시에는 땅에 묻혀 있었다고 하

세계속의 불교

태국 스님들의 하루와 불교행사

1. The daily life of a monk (태국 스님들의 하루)

태국 승가는 약 200,000명의 스님들과 85,000명의 수행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최근에 300,000명의 스님, 100,000명의 수행자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어린 소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수행자가 될 수 있으나 20살이 될 때까지 스님이 될 수 없다.

태국에는 29,000개의 사원이 있지만 모든 사원의 스님들 생활은 거의 비슷하다. 스님들은 오전4시에 일어나 한 시

간동안 명상을 한 후 성가를 부른다. 오전 6시 탁발을 하기 위해 사원을 떠나고, 오전 8시 사원으로 돌아와 아침공양을 한 후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를 올린다. 정오에 가볍게 점심공양을 하고 오후 1시 불교수업을 받기 위해 사원밖에 있는 학교에 간다. 오후 6시부터 두시간 동안 명상과 기도를 한다.

모든 스님들은 227개의 엄격한 계와 행동규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이성적인 면에서는 가장 엄격하여 여자들은 스님들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스님들에게 어떤 물건을 줄 때는 천 조각과 같은 매개체를 사용하는

다. 또한 한 방에서 같이 머무를 수 없다. 스님으로 수계를 받을 때는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났으며 과거에 업매이지 않는다는 서약을 받는다.

태국 스님들은 어두운 갈색, 밝은 황혼색 등 다양한 형태의 승복을 입을 수 있어 승복에 대한 어떤 규칙은 없으나 튜동, 마에이투스 스님들은 어두운 승복을 입는 것을 좋아한다.

2. The Thai buddhist calender (태국인들의 불교행사)

Visakha Puja : 음력 4월 8일 (국제적으로 5월경), 부처님 오신날, 이



날은 불교행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거대한 행사로 3일 동안 대승불교, 주요행사, 촛불행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Magha Puja : 음력 3월 15일, 1,250명의 교화된 스님들이 부처님을 경배하기 위해 모인날, 이날은 Visakha Puja와 비슷한 행사가 열린다.

Asalha Puja : 음력 8월 15일, 부처가 깨달은 후 초전설법한 날, 이날은 중요한 설법을 듣고 밤 동안은 연등행렬이 열린다.

Khao Phansa : 음력 8월 16일, 3개월동안 불공을 시작한 날, 모든 스님들과 수행자들은 특 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대 외출할 수 없다. 이 기간동안 스님들과 교도들은 불공에 용맹정진한다. 또한 교도들은 자녀들이 불교를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 사원에서 생활하도록 한다.

Ok Phansa : 음력 11월 15일, 3개월 불공 회향일, 이날은 자녀들이

사원에서 불공을 마치고 귀가하는 날이다.

Tod Kratin : 음력 12월 15일, 30일 동안 지속됨, 이 기간동안 대부분의 교도들은 불교행사에 참석하며, 성대한 전담의식을 통해 스님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옷들을 전달하여 사원에서는 재물을 모을 수 있는 행사이다.

위의 행사들은 성대하게 이루어지고 성스러운 공덕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도들은 아침 일찍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사원에 도착하며, 가장 화려하게 장식된 은과 금의 그릇에 음식을 담아 스님들에게 전달하며 스님들의 설법을 듣고, 기도를 한다. 밤에는 연등행사에 참석한다.

(www.buddhanet.net/wat-m6.htm) (번역: 김용주 교무(총지종보))

부처님 오신날

한국디지털위성방송

"부처님의 말씀이 불교TV안에 있습니다"

- SkyLife와 함께하는 불교TV시청 캠페인 -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을 통해 산간벽지의 난시청지역에도 부처님의 법음을 전합니다

SkyLife란?

국내 유일의 다채널 디지털위성방송으로 스카이라이프 수신기만 갖추시면 전국 어디서나 종교(불교TV 등), 영화, 음악, 청소년, 여성, 스포츠, 뉴스 등 150여개 다채널을 고품질, 고음질로 시청하실 수 있는 고품질의 방송서비스입니다

패키지명/채널명	채널 수	채널 구성
SkyFamily	112 채널 (불교TV 포함)	일반채널: 불교TV, KBS1, KBS2, EBS, 홈쇼핑 등 영화 및 드라마: OCN, MGM, 드라마 3개 포함 12개채널 스포츠: KBS, MBC-ESPN, SBS, SBS골프 등 5개채널 증권 및 뉴스: CNN, HNK, YTN, 한경와우 등 어린이: 대교, 재능스스로 / 디즈니, 니켈로디언(원어방송)
EDU 1,2,3	초/중/고등학생들의 내신성적 향상과 수행성을 위한 채널	
SKY수능1,2	수능시험을 앞둔 수행성을 위한 채널(집시타고 대학가자!)	

부처님 오신 날 맞이 가입혜택
■ 정비용: 3,660원 × 24개월 (24개월 의무가입)
■ 월 수신료: 12,600원 (1년간 30%할인) / 12개월 의무시청 (SkyFamily기준)
■ 납부방법: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 (월 정비용 + 수신료 합산 청구)
■ 특전: 1개월 수신료 및 설치비, 가입비 면제 (단, 가입조건은 월별정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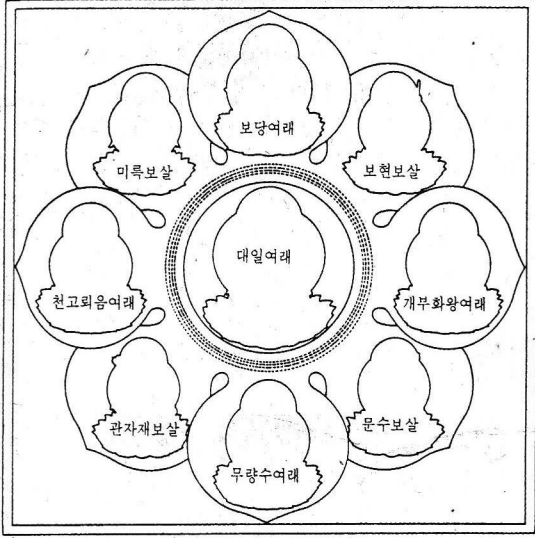
태장계만다라의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

지난 12월 한국불교 최초로 봉안했던 양부만다라의 봉안은 밀교중단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중단의 교리와 사상적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밀교의 精華, 양부만다라를 기획연재를 통해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지난호에서는 태장의 의미와 태장만다라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호에서는 태장만다라의 가장 중심인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중대팔엽원은 태장계만다라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여덟 개 꽃잎의 연화(蓮華)의 모양은 인도에서 심장모양으로 비유된다. 그만큼 중대팔엽원이 태장계만다라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바로 깨달음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연화의 색깔에 대해서 『대일경』에서는 모백련(妙白蓮)으로서 중생의 청정심을 표현하고 있고, 현도만다라(現圖曼荼羅)에서는 심장에 비유하여 적색(赤色)으로 표현하고 있다. 연화의 중앙에는 대일여래(大日如來)가 자리잡고 그 주위로 동쪽에 보당여래(寶幢如來), 남쪽에 개부화왕여래(開敷華王如來), 서쪽에 무량수여래(無量壽如來), 북쪽에 천고뇌음여래(天鼓雷音如來)의 사불(四佛)이 있고, 그 사불(四佛) 사이에 사보살(四菩薩)이 안치되어 있다. 즉 보당여래와 개부화왕여래 사이의 동남쪽에는 보현보살(普賢菩薩), 개부화왕여래와 무량수



중대팔엽원 명칭도

대일여래는 지혜의 총체이며 절대적인 지혜이다
사보살은 사불을 과로 볼때 인위의 덕을 나타냄

여래 사이의 남서쪽에는 문수보살(文殊菩薩), 무량수여래와 천고뇌음여래의 서북쪽에는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 천고뇌음여래와 보당여래 사이의 북동쪽에는 미륵보살(彌勒菩薩)의 사보살(四菩薩)이 그려져 있다.

이 사불(四佛)은 중앙 대일여래의 덕성(德性)을 나타내며, 사보살(四菩薩)은 사불(四佛)을 과(果)로 볼 때 인위(因位)의 덕을 나타내고 있다. 보당여래는 보시행(布施行)을, 개부화왕여래는 정진(精進)을 나타내고, 무량수여래는 선정(禪定)을, 천고뇌음여래는 반야(般若)의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다. 사불에 대한 사보살의 인위의 덕을 살펴보면, 보현보살은 보당여래의 인위로 종교적 발심을 나타내고 문수보살은 개부화왕여래의 인위로 종교적 실천에 있어 지혜를 나타낸다. 관자재보살은 무량수여래의 인위로서 보리(菩提)의 덕을 나타내고 미륵보살은 천고뇌음여래의 인위로 종교적 이상세계를 표상(表象)하고 있다.

또, 대일여래를 비롯한 오불(五佛)을 다섯가지 지혜(五智)로 나타내기도 한다. 대일여래의 지혜는 법계체성지(法界體性智)이다. 이 지혜는 다른 사불(四佛)이 지닌 지혜의 총체(總體)이며 절대적인 지혜를 나타낸다. 개별적인 지혜의 전개는 다른 사불(四佛)에 의하여 표현되고 있다. 보당여래의 지혜는 대원경지(大圓鏡智)이다. 거울(鏡)이란 것은

온갖 것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비추어 주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의 작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대원경지이다. 개부화왕여래의 지혜는 평등성지(平等性智)이다. 현실세계에서는 자기와 타인을 포함해서 모든 것에 차별을 두고 있다. 이러한 차별을 없애고 이상과 아난을 제거하고 모든 것이 차별이 없고 평등한 것임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니 지혜가 평등성지이다. 무량수여래의 지혜는 묘관찰지(妙觀察智)이다.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성을 정확하게 관별하여 알 수 있는 지혜이다. 사람들 각각의 근기를 파악하여 그 사람에게 적합한 가르침을 자재하게 설할 수 있는 지혜이다. 천고뇌음여래의 지혜는 성소작지(成所作智)이다. 갖가지의 것을 완수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이다. 자기 자신의 신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다른 자에게 활동작용하여 사람들을 교화(教化)하여 구제해가는 활동의 지혜이다.

문수보살은 왼손에 반야경을 쥐고 오른손에 푸른 연꽃을 들고 연대(蓮臺) 위에 삼고저를 세우고 있다. 이 반야경은 문수보살의 본서(本誓)가 반야의 지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푸른 연꽃과 예리한 삼고저는 미혹의 마음을 분쇄하는 날카로운 반야의 지혜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곧 개부화왕여래의 보리심을 전개시켜나가는 모습이기도 하다.

관자재보살은 오른손에 활짝 핀 연꽃을 잡고, 왼손으로는 가슴까지 들고 손목을 세우 엄지손가락 끝과 검지끝을 서로 붙이고 있다. 그 눈은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자재로 능히 중생의 자심(自心)을 살필 수 있도록 자애(慈愛)에 충만한 눈을 취하고 있다. 활짝 핀 연꽃은 부정(不淨)한 사바세계에서 깨어나 아름답게 피어오른 청정한 보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곧 선정인을 하고 교묘히 우주의 진리를 관하는 무량수여래의 이상을 실천하는 모습이다.

이와같이 중대팔엽원의 사불과 사보살의 관계는 발심, 수행, 보리, 열반이라는 네가지의 인과계위(因果階位)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불 사보살 이외에도 중대팔엽원에서 나타내고 있는 상징들은 다양하다. 연화(蓮華)의 팔엽(八葉) 사이에 있는 금강저는 여러 가지 지혜의 작용을 표현한 것이고, 중대팔엽원의 네 귀퉁이에 놓여 있는 네 개의 병은 대일여래의 사덕(四德)을 나타낸 것이다. 즉 보리심, 자비심, 뛰어난 견해, 방편을 나타내고 있다. 그 위에 중대팔엽원의 주위를 둘러싼 다섯가지의 선(線)이 그려져 있다. 이를 일러 오색계도(五色界道)라고 한다. 오색계도라고 하는 이 선(線)은 안에서 바깥으로 향하여 백(白)·황(黃)·적(赤)·청(靑)·흑(黑)의 순서로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대일여래의 덕이 사방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료제공 법정원)

한보살의 아름다운 세상

진달래가 피는 이유

봄이 되면 산에는 진달래가 피어난다. 흐드러진 진달래를 따며,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났다. 나도 모르게 진달래를 보며 고마움에 미소가 지어졌다. 이렇듯 자연은 우리에게 행복한 선물을 주는데 우리는 자연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쓰레기와 공해물질로 자연을 오염시키고 파괴하고 있으니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진달래는 왜 필까? 지난 가을 단풍은 왜 노랗고 빨갛게 물들까를 물었던 것처럼, 왜 봄이 되면 진달래, 개나리, 벚꽃 등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걸까? 의문이 들었다.

얼마 전 추웠던 날씨가 갑자기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지던 어느 날, 드디어 봄이구나 싶은 그런 초봄에 산에 올라가 보았다. 그런데 산은 겨울산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단지 눈이 없고 맑은 개울물이 흐른다는 정도뿐, 아직 파란 색도 보이지 않았고 나무는 여전히 앙상했다.

봄에 진달래가 핀 것처럼 부처님도 온 세상에 고통과 갈망, 미움과 원망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구제하려고 오셨다.

그런데 지금 진달래가 핀 산은 울긋불긋 아름답다. 진달래만 아니라면 아직 봄이 왔다고 할만한 것은 없었다. 아하, 진달래는 봄을 알리려는 것이구나. 진달래가 질 무렵 이제 땅에서도 파릇파릇 풀들이 돋아나고 나뭇잎도 연한 연두색 새싹을 내민다. 진달래, 개나리, 목련, 벚꽃 등 이른 봄에 피는 꽃들이 일보다 먼저 피는 이유는 봄소식을 빨리 전해 주려는 것인가 보다.

이제 진달래를 대신해서 철쭉이 피어나고 연두색 나뭇잎은 점차 밝은 초록이 되간다. 지금은 초록의 싱그러움이 또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다. 이렇듯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니 더욱 기쁘지 않을 수 없다. 만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봄에 만생명의 어버이이신 부처님께서 오셨으니, 우리도 봄맞이하는 진달래처럼, 봄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진달래처럼 부처님 오신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되지 않을까? 부처님께서 우리 모두의 존재는 다 존귀하고 소중한

깨우쳐 주시기 위해 오셨으며, 이 세상의 고통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으니, 고통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도, 오만과 어리석음에 갇혀있던 사람도, 미움과 원망 속에 있던 사람도, 욕심과 갈망으로 괴로워하던 사람도 모두 부처님의 법비를 맞고 괴로움에서 벗어나 기쁨과 안락을 누리자고, 어서 어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싶어 내 마음은 다시 설렌다.

이런 설렘으로 우리는 연등을 만들고 현수막을 걸고 거리로 등을 밝히고 여러 가지 문화 행사도 준비하면서 우리는 부처님 오심을 알리고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한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준비 못지않게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보살피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옛날 연등부처님시절의 선행자는 부처님을 맞이하기 위해 마중을 나갔다가 흉탄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를 보고 부처님께서 흉탄물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 온몸을 던져 웅덩이를 가렸다. 연등부처님은 보살의 정성을 칭찬하시고 수기를 주셨으니 그가 바로 현세의 석가모니부처님이셨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그 웅덩이는 바로 세상의 소외된 곳이다. 땅이 고르지 못해 웅덩이가 패이고 흉탄물이 고였듯이 우리 세상이 평등하지 못해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이 있다. 그 아픔을 보살피고 세상을 고르게 만드는 일이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오심을 맞이하는 최선의 준비가 아닐까.

몇 년 전부터 부처님오신날에 이웃을 위한 등을 함께 다는 일이 권장되고 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등만 달지 말고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등도 함께 달아 주는 넉넉함이 부처님 오신날을 더욱 기쁜 날로 만들 것 같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날이 불자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날이 될 때 온 국민의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불교여성개발원 연구과정 한주영)

이달의 명상

하루 세 끼 배부르게 먹고, 입에 맞게, 골라 먹고 사는 것에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IMF이후로 거리에서 배가 고프고 굶어 죽은 사람이 무려 2,000여명이라고 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먹지 않고 살 수가 없다. 음식을 먹는다 것은 생존의 첫째 조건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어느날 기수급고독원 정사에서 보시를 설하실 때 "모든 중생은 먹음으로 인해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증일아함경 제27, 등취 4제품)

그들은 거리의 추위속에서 먹지 못해 굶주림 속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노숙자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신심깊은 불자들도 많이 있었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복이 많아서 마음의 평화와 함께 현실을 행복하게 사는데 어떤 불자는 오갈데 없는 노숙자가 되어 굶주림과 추위속에서 병든 몸으로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는 가운데 그렇게 고통받으며 쓸쓸히

죽어가고, 귀중한 생을 마감해야만 한다. 생명의 심장이 고동치는 동안 아니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동안에도 배고픈 서러움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으리라.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불렀으리라. 더 이상 부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때가 있지...

과연 누가 이들에게 복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불쌍히 죽어간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 불자들이 하루 한 끼만이라도 그들을 도와주었다면 그들은 굶어서 죽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안타까움과 아픈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매일 100원만 보시를 해도 그들이 굶주림으로 인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살려고 몸부림치다 그 의지마저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은 꺼져버릴 수 밖에 없는 생명들이 지금도 굶주린 배를 잡고 몸부림치고 있을 것이다. 좋은 세상에 다시 태어나 행복하길 서원하면서...

(총지사 주교 법 등 정사)

학생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 고쳐하는 청소년들이여 지금의 나로 태어났음에 감사하라. 그대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우연히 아니다. 모두가 전생에 좋은 업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에 만족하고 사람으로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를 생각하라. 어떻게 하면 지금의 나를 향상시키고 많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는가? 를 생각하라.

불교 총지종 정각사에서 부처님과 함께 꿈을 실현하고, 자비를 실천할 학생회 회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교도 가정의 자녀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불교 총지종 정각사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전화 : 051) 552-7901

정각사 주교 경원 합장

총지논단

희사(喜捨)

본 글은 종조 원정 성사께서 서적 간행을 위해 친히 쓰셨던 원고의 일 부입니다. 원정 성사께서 창종의 뜻을 구국도생(救國度生)에 두셨던 만큼 구구절절 일체중생제도의 대비원(大悲願)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한국밀교의 중흥을 창종정신으로 삼았던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정통밀교종단의 교상과 사상의 체계와 정립에 전념하셨습니다. 특히, 한 때 진각종단의 총인직을 맡으셨을 때는 모든 교리체계와 교전편찬을 손수 완성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면면은 원정 대성사의 유교(遺稿)에서 엿 보게 됩니다. 심인(心印) '진각' 등의 언급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총지종과 진각종의 교전을 이루고 있는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에서 대성사의 숨결을 다시 한번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심공하고 이 법을 실행하게 되면 결인을 면하리라. 지주력을 얻어서 직업이 있고, 살면서도 얻어먹는 데에 비할 수 없는 극락으로 살게 된다.

이와 같은 심묘한 진리는 평등하게 모두가 가지고 있으므로 나는 없는 사람이라 하고 희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자유진리가 발전하는 이 세상에는 가난하게 살 사람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보살님은 이미 심공하는 각자(覺者)로서 이와 같이 희사를 해야 한다. 심공은 실패해서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요, 농사 짓는 사람은 패농하는 일이 없고 공춘(窮春)이 없을 것이요, 노심하고 노려한 자제로 열심히 삶을 사는 사람은 부족하여 굶어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는 새와 기는 짐승과 움직이는 벌레를 보라. 적당하게 먹으며 살고 있나니 하물며 움직이는 동물 중에서도 최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날 때에 다 본심으로 입고, 먹고, 살게 되었거늘! 오직 중생은 작은 현실의 내에 집착하여 간담심으로 무량한 진리 하나를 깨치지 못하므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전생의 인(因)으로 이 생에서 평생 감옥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가 많으니라. 정기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심장 가운데 있는 심인(心印)을 무시하고 깨닫지 못하므로 헛벗고 굶주리고 살고 있는 것이다. 심공하고 본심으로 수행을 실천하여 보라.

현세에서 내가 곧 행복하게 될 것이요, 행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지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종지가 분명하게 되어 있으므로 비록 지혜가 어두운 사람이라도

깨닫기 쉽고 내중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종지가 분명하게 된 연후에 백일과 십일 희사를 능히 행하게 되면 극락이 서방의 십만억겁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 높은 구름 위에 있는 것도 아니라, 곧 심인(心印)을 깨닫고 육행을 실천하는 그 행복이 천국이요 극락이니라.

희사하는 원리

문명기술과 새롭게 발명된 기계로써 대기업을 시달하는 공장은 낡은 기계를 가진 공장들을 위협하고 좋은 물건과 생산을 증가하여 이익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이 과학문명일 것이다. 과학문명이 발전하는 이때 진각님의 뜻도 천명이 하는 일을 한 명이 하게 되고 수익이 증가하게 되는 동시에 그 사람은 직접 간접으로 천 명을 구제하기 위해 국가적 의무나 종교적 희사를 많이 하게 된다.

민약 다른 공장을 위협해서 실업자를 많이 발생하게 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한 사업은 조금도 하지 않은 채 자기 몸과 가장만 생각하고 널리 희사금을 내지 않는다면 법계 진각님의 진리에 비취를 때 물질만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사업은 온당치 않을 것이다.

특수한 분야의 전문사업을 하는 이에겐 큰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희사를 해야만 한다. 직접, 간접사업이 어떤 것인가? 하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도로, 항만과 같은 큰 사업이 간접사업이 될 것이요, 종교를 믿고 회사함으로써 종교기관에서 행하는 큰 불사가 간접사업이 될 것이요, 또 교육기관을 세우고 교화기관

을 세우고 고아, 양로원을 세우고 기타 자선사업과 산업기관을 세우는 것은 직접사업이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유익하게 쓰겠다고 맹세하지만 재물탐식은 죽는 날까지 끝이 없이 높아만 가고 재물을 유익하게 쓰겠다는 맹세는 실천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 위에서 예를 든 과학문명으로 자유국가를 건설하는 것은 기업가에게만 국한해서 말할 것이 아니라 삼천만 국민이 다 자기 입장에서 민족하고 중생을 위해서 실천해야만 되는 것이니라.

중생은 죽어서 극락왕생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생명을 위한 의식주 생활만을 생각하고 추구하면 영원히 사는 영혼의 세계는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현세에 평생동안 희사하고 자자손손 희사하면 모든 가족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유상보시 보다 무상보시의 목욕이 무량한 이유를 밝힘

결인을 도와주는 것은 보시가 되고 종교재단에 도와주는 것은 희사가 될 것이



그러므로 국민이 모두 종교를 믿어서 심인을 깨닫고 또 자기에게 유익함을 찾아 내중하면 빈부 노소는 물론 모두가 현실에서 진리를 행할 수 있게 될 것이요, 큰 재산가가 되어 갈수록 이익이 많은 고로 세금과 같이 희사하는 비율을 점점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다.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천만원을 결인에게 주었다고 하면 오늘부터 그 천만원은 결인의 수중에서 쓰고 없어지며, 교당을 짓고 종교재단에 희사한 것은 백천원이 지날지라도 존속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받는 사람들이 전당을 찾아가 영혼의 안식을 찾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히 교화하며 제도하게 되는 것이 대승적이라. 복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고 무량하여 끝이 없으니라. 그렇다고 소송적 보시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라 희사는 대승적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승적, 소송적 희사를 행할 줄 알아야 한다.

물질시대의 재물에는 두 문(門)이 있다

물질시대에 재물은 희사로 나가고 고통으로 나가는 두 문(門)이 있다. 물질시대에서는 전제세 사람들은 막론하고 작게는 한 가정의 재물은 고통으로 나가고 희사로 나가는 두 문이 있다. 고통으로 나가는 문이 열리면 희사로 나가는 문은 닫히어지고, 희사로 나가는 문이 열리면 고통으로 나가는 문은 닫히어지는 것은 법계의 원칙이다.

중생은 이와 같은 진리를 알지 못하므로 희사문을 열지 못하는 이가 많다. 고통으로 나가는 문은 저절로 쉽게 열려지고 희사로 나가는 문은 일부러 열어도 열려지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 법계의 진리를 아는 물질시대 사람은 진각님께 정공하고 공의로 쓰는 것을 행복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이치를 모르게 되면 중생이 행하기 어려운 것은 행복되는 일인 까닭으로 한 가족이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여야 원만하게 행복되는 문을 열게 되고 도(道)가 한자쯤 높게 되면 마(魔)가 열길 높다는 것과 같이 간혹 심마(心魔)에 속지 않아 이어가게 되느니라.

희사를 이어가는 결과는 이 세상을 살수록 행복이 크고 죽은 후에는 또 천당에서 살고 극락에 이르게 될 것이요, 고통으로 나가는 결과는 이 세상을 살수록 고통의 큰 지옥에 빠져 살게 되고 죽은 후에는 삼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자료제공 중학연구원>

재물이 없어 희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음을 밝힘

희사는 먹고 남는 것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하는 그 자리에서 손익도 계산하지 말고, 월급을 받을 때까지 모자란다는 것도 헤어지지 말고 수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개념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법계 진각님께 정공희사를 먼저 한다는 것이다.

현금수입이 없다고 희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에 고난을 면하기 어려우니라. 의복이나 양식이나 물질을 친구나 남에게 얻었더라도 현금과 같이 희사를 하다가 보면 그 결과는 자기가 알게 될 것이다. 남에게 빌어서 먹고 사는 결인이라도

조선화원장의 총지 등의 보급



요실금이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원하지 않는 장소와 시간에 소변이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요실금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소변이 배출되어 속옷을 적시게 됨으로 이로 당혹감이나 수치심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 시킬 뿐 아니라 요실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일상생활 활동이 감소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사회활동으로부터 고립되게 되며 지속적으로 속옷에 소변이 묻어 있게 됨으로써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방광 근육이 비대해지고 방광벽이 두꺼워져서 방광의 확장 능력이 감소하게 되어 방광내에 저장할 수 있는 소변의 양이 350~400ml에서 250~300ml로 감소하게 된다.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낀 후 실제적으로 소변을 보는 행위를 하기까지의 시간 간격이 짧기 때문에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낀 후 소변을 볼 적절한 장소를 빨리 발견

요 실 금

하지 못하게 되면 요실금이 발생하기 쉽다. 요실금이 있는 경우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요실금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로부터 진단 받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므로 다음에서는 간단하게 스스로 요실금을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을 소개하고자한다. 이 자가진단법을 이용하여 스스로 요실금을 진단한 후에 요실금이 의심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요실금 자가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아래 질문의 답 중에서 ③번과 ④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실금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소변이 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① 찻숟가락 정도 ② 속옷에 묻을 정도 ③ 속옷을 적실 정도 ④ 다리로 흘러내릴 정도
 3.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못하고 그대로 속옷에 적시지 않습니까?
① 없다 ② 한달에 한 번 ③ 일주일에 한 번 ④ 매일
 4. 소변을 볼 때 아랫배에 통증이 있거나 항상 하복부가 묵지근하고 소변을 본 후에도 시원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한달에 한 번 ③ 일주일에 한 번 ④ 매일
 5. 찬물에 손을 담그거나 물흐르는 소리를 들을 때 또는 추운 겨울에 속옷을 소변으로 적신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한달에 한 번 ③ 일주일에 한 번 ④ 매일
- “요실금의 원인을 단순한 방광의 노화현상이라 규정지어 체념하거나, 외과적 수술요법, 일시적이고 단순한 자극으로 증상을 개선하지만 쉽게 재발되고 반복되는 악순환을 거듭한다면 치료의 의미가 적습니다. 오히려 약해진 면역력과 저하된 방광 및 주변생식기로의 혈액

순환을 원활히 하여 기능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인체의 신진대사능력을 활성화시키고 노화를 예방하는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한의학 옛 문헌에 “열 명의 남자를 치료하는 것 보다 한 명의 여자를 치료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여성의 인체는 복잡하고 예민하여 다양한 질병에 노출되고 특히 생리, 임신, 출산 후 변화된 자궁과 생식기능 저하가 질병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여성의 건강이 방광을 비롯한 생식기 및 자궁의 건강으로 직결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요실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첫째, 평소 골반근육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한다. 둘째, 일정시간간격으로 소변보는 습관을 갖는다 셋째,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인 알콜, 탄산음료, 초콜릿, 커피 등의 섭취를 제한한다. 넷째,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통해서 정신적 긴장을 해소한다. 다섯째, 하복부 비만의 경우 방광 및 자궁의 혈액순환을 저하시키거나 골반근육을 약하게 하여 요실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예방하거나 조절해야 한다.

여성美 한의원 원장 ☎(02)545-0072

여성美 19 조선휘 원장

이원 여성병(부인과)의 고생애사나와 여성美 한의원은 다양한 치료요법으로 여성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성美 한의원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갱년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종,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저(임덧), 임신중독증 등...
 -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 기능성저약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 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 진료시간
 - 평◎◎일 : 오전 9시30분~오후 6시30분
 - 주◎◎말 : 오전 9시30분~오후 4시
 -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KBS)

“음악TV ‘전문의 상담’” (MBC)

한남대학교

신사역3번출구 신인은행빌딩 신사역1번출구 도산대로

30M 지하 주차장 1분거리 STARBUCKS (대성비만의원)

김남여

자경단(子經丹)

초양질환
자궁근종
생리질환
복심 자궁어혈케거

생혈액분석기 | 자동팔광진단기 | 초음파 | 은열전기침 | 저주파자기기 | 작운욕기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전화상담 02)545-0072 Fax 02)545-2191

풍경소리

-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땅바닥에 누워 자도
오히려 편안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당에 살아도 역시 마음이
흡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록 부자라도
기실 가난한 것입니다.

- 불유교경(佛遺教經)중에서-

- 유한, 무한

지금은 봄이다.
움츠렸던 겨울의 생명들이
새 기운을 차린다.
날고 기고 뛰면서 봄을 즐긴다.
그 광경을 보고 있으면
나도 그 속의 한 조각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한 포기의 풀이 되고,
한 마리의 새가 되어서
그들과 더불어 흔들고,
뛰고,
날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리하여 나를 잃어버린,
전체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자니고 싶다

- 김시현(수필가)-

- 세상은 거대한 거울입니다.

잠깐만 자비에 대해 명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이라고

마음 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그 마음을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로 넓혀갑시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나처럼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속삭이면서 세상에 자비가
가득 찬 광경을 그려 봅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거울입니다.
당신이 환한 웃음을 띠고 거울을 바라보면
거울도 당신의 환한 미소를 되돌려 줍니다.
- 최정희(불교언론인), 아신 티티라 중에서 -

- 나만이라도

"작은 먼지 티끌이 온 우주를
머금었고, 참나기 곧 영겁이다."
의상스님의 말씀입니다.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송이 들꽃 속에서 천국을 본다.
손바닥 안에 무한을 거머쥐고
순간 속에서 영원을 붙잡는다."
어느 시인의 노래입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 모두가 제각기
하나의 소우주임을 일깨워 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잊고
스스로를 가버려 여겨 '나 하나 쯤이야'
하면서 함부로 행동하기 일쑤입니다.
이제는 '나 하나 쯤이야' 하는 생각을
'나 만이라도' 하는 생각으로
바꿔가야 할 일입니다.

- 박경준(동국대학교수)-

(자료제공 :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나도 한마디 봉사하는 생활은 넉넉한 삶의 원천

"병들어 누워있는 노인의 거칠어지고 주름진 손
과 얼굴을 만지며 한참을 울었다.
세월의 흐름속에서 어쩔 수 없이 순응하고 거부
할 수 없는 인간의 늙음과 죽음!, 그러나 주름지고
거칠어진 얼굴 속에서 피어나는 천사처럼 하얀 미
소와 따뜻한 마음!, 저 분들도 옛날에는 아니 20대
처녀시절에는 어느 누구보다 예쁘고 아름다운 얼굴
과 피부를 가졌으리라."

몇 해 전부터 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였다.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이 마음속에 부담
으로 작용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야지 하고 마음먹은 지 여러번!, 텔레비전에서
어렵게 고통받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
물을 흘리며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막상 복지관을
찾아갈 용기가 없어서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우연
한 기회에 사회복지사와 인연이 되어 노인복지센
터에서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
회를 가졌다.
그래서 지금은 최소한 1주일에 한번은 독거노인
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노인들을 위해 빨래하기, 청
소하기 등 가정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날이면 왠지 가슴이
뿌듯하고 내가 생명의 씨앗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삶의 생동감과 마음의 풍요를 얻기
때문에 남에게 봉사하는 행위가 결국에는 자신의
행복과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깨달았
다.

(서울시 강남구 양재동 김안나)

나도 한마디는 총지중보 독자의 공간입니다.
책을 읽고 느꼈던 소감이나 총지중보, 총지
종 종단에 바라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은 총지중보사로 원고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총지중보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
전화 : 02)552- 1080 팩스 : 02)552-1082
이메일 : kyjyja@hanmail.net

원정대성사와함께하는 VISUAL 밀교 -반야심경편제18화-

글.그림/정수일

히히히... 놀라셨죠?
하하.. 불생불멸을 설명하고 있던차라 놀라지도 않고 안놀라지도 않네요.

임? 드라클라 백작이네.

"불생불멸"이란 말은 현대과학의 "에너지보존의법칙"과도 같은 뜻인가요?

헉!

하하하! 2600여년전에 사셨던 부처님께서도 우주의 진리를 깨달은 분이시기에 그런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것이죠, 현대 과학자들도 대단히 놀라고 있다고 합니다.

잔잔한 강물에 바람이 불어 파도가 생겨남은 우리들이 인식하는 현상계의 각각 차별화된 모양을 말함이며

현상계의 차별화된 각각의 모양

그.. 그런 상식을 떡입술 각자님이 어떻게...?

임! 저를 너무 무시하는게 아네요?

하하하! 다시 잔잔해진 강물은 불생불멸이라는 진리의 본성을 말해주는 것이랍니다.

이임.. 머리아파

히히히... 불생불멸이라면 에너지가 항상 충분할테니까 아낄 필요 없이 마구 써도 되겠군.

에그.. 뭘 모르시는군.

에너지를 그렇게 낭비하다간 인류는 곧 에너지부족의 위기를 만나게 된다고요.

앞으로 약 50년후엔 지구에 존재하는 석유가 바닥이 난다고 해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물리학에서 말하는 열역학의 법칙중에 "엔트로피의법칙"이라는게 있습니다.

엔트로피(entropy:혼돈,무질서)의법칙: 무질서도증가의 법칙이라고 하며 어떤 에너지가 일정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 되면서 어떤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용가능한에너지를 잃게 되는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가스로 냄비속의 감자를 삶는다고 할 때 가스 에너지는 불꽃,수증기,이산화탄소 등의 속으로 이동했거나 형태를 바꾼것이며 가스통 속에는 더 이상 에너지가 남지 않게 된 것이죠.

하긴, 먹었던 감자가 소화된 후 또 다시 감자로 나올 순 없겠지?

감자 방구라? 이그 더러워

공!

밤...

맘자

서울·경인교구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총지중 서울·경인
합창단에서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자비를 실천할
단원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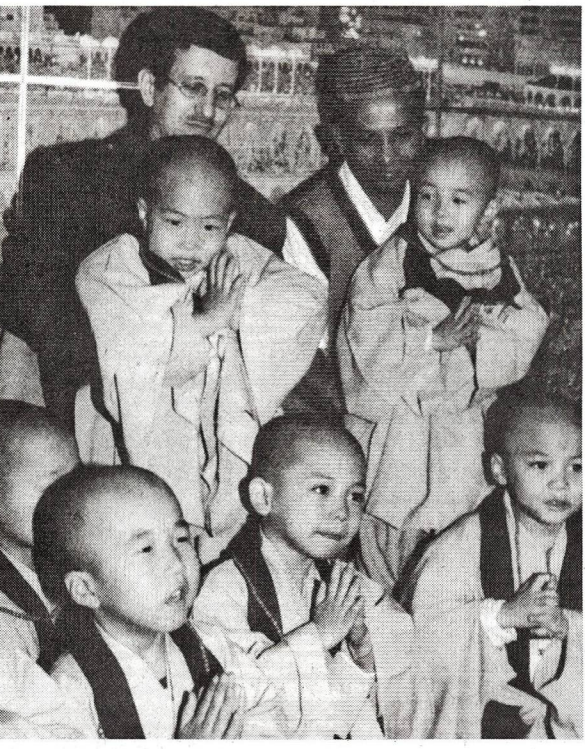
모집대상 : 모든 불자
모집시기 : 수시
연습일시 :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오후 2시
연습장소 : 총지사
연락처 : 최재숙 단장
(02-922-3677)

불교계 이라크 난민구호 성금 모금 부처님의 자비정신 실천을 연꽃에

조계종, 천태종, 경 불련 등 불 교계의 이라 크 난민구호 활동이 본격 화되고 있 다.

천태종은 19일부터 2 백여 소속사 찰과 산하단체, 관련단체 등을 중심으로 성금 모금운동에 돌입했다. 서울 관문사, 부산 삼광사, 대전 광수사, 인천 연화사 등 천태종 소속 전국 2백여 사찰은 5월 법회를 '이라크 어린이를 위한 특별법회'로 전환해 봉행한다.

이와 함께 '이라크 어린이를 위한 자비의 등달기' 운동도 전개한다. 자비의 등 달기에서 조성된 수익금은 전액 이라크 어린이를 위한 성금으로 사용된다.



조계종도 16일 총무원 총무회의에서 이라크 난민돕기 모금 캠페인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불교종단협의회 전주교 주교회의,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등 종교계 단체와 공동으로 '이라크 어린이에게 의약품'이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법회를 통한 성금모금으로 진행된다.

경불련을 비롯한 불교계 단체들도 난민구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경불련은 불교계 최초로 이라크 긴급구호팀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경불련, 조계종 중앙신도회, 인도라생명 공동체 등 불교계 단체들은 '이라크 난민돕기 범불교 대책위'를 구성해 지속적인 난민 구호에 나설 예정이다.

진각종 '정진과 휴양' 도량 건립 경주소재 대규모 산내연수원 인수

진각종은 경북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164-2번지 소재의 산내연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법을 포교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 부산지역 봉축합창제 참가

총지중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은 4월 24일 부산 천태종 삼광사에서 개최한 제2회 부처님 오신날 봉축 합창제, 4월 26일 문화회관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날 봉축 부산지역 연합합창제와 5월 4일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한 부산지역 연등축제에 참가하여 아름다운 음성으로 부처님의 법을 포교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정각사 만다라 합

수원을 인수하고, 이달 초 현장에서 해일 총인을 비롯해 효암 통리원장 등 신교도가 참석한 가운데 지진불사를 봉행했다. 지난해부터 인수작업이 추진된 산내연수원은 부지 30만평에 실내강당과 25개실 숙박시설을 갖춘 생활관, 식당, 야외 공연장, 논밭매장 등 체육활동 공간, 자연체험 학습장, 수련의 숲, 강의실, 휴게실, 양호실 등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

이에 따라 진각종은 간단한 내부시설 수리와 개조를 거쳐 신교도 및 불자, 일반인들 등 이용을 원하는 이들에게 제공하는 쉼터 개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며, 청소년 캠프, 심신수양센터, 예절, 전통미술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존의 연수시설과 차별화된 수련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창단은 초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처님의 공덕과 교도들의 도움으로 현재는 부산지역에서 불교단체 합창단으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며 아름다운 음성공양으로 총지중의 각종 행사 및 부산지역 각종 불교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만다라 합창단 단장인 황은희 보살은 "정각사 만다라 합창단은 총지중의 관세음보살 본심미묘인 음마니반베해의 육자진언으로 삼밀관행을 터득한 자만이 가입할 정도로 불심이 깊은 사람만이 가입시키고 있을 정도로 가입자격도 엄격하며 현재 50명의 젊은 보살들로 매주 2회에 걸쳐 정각사 합창단실에서 아름다운 협주곡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만다라 합창단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하였다.

위원회와 공동으로 법요의식의 장엄화와 웅장함을 추구하기 위해 법구 등을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의식은 종단의 전통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승인과 교도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총지중 상반기 49일 불공 회향

진언의 삼밀관행법으로 불공의 공덕 증진

총지중은 2월 19일부터 입재한 상반기 49일 불공을 4월 8일 회향하였다.

불공기간동안 삼밀관행법으로 자녀의 건강과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서원하고 국가의 안전과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경제둔화를 탈피하여 산업발전을 서원하며 총지중 전 스승님들과 교도들이 웅망정진 하였다.

상반기 49일 불공 회향에 즈음하여 총지중 특종 종령님께서 "불공의 공덕으로 이라크 전쟁은

조기에 종료되었으며, 밀교의 주옥같은 진언과 바른 삼밀관행법으로 지심으로 불공하여 웅망정진 하였다면 서원하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므로 항상 청아하고 진주같이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허물을 찾도록 노력하여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불공을 회향했을 지라도 우리 종단이 표방하는 처처불공 시시불공으로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불공하는 마음 자세로 실행하라"고 강조하셨다.

신행체험

* 이글은 총기 32년(서기2003년) 4월 14일 만보사 김영자 보살님의 남편인 고 계미생 이길우 영기의 49재 회향시에 남편의 극락왕생을 바라는 마음으로 김 영자 보살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이길우씨는 회갑인 61세 총기 32년(서기2003년) 2월 26일에 별세함.

사랑하는 당신에게!
오늘 49재를 맞이하여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너무나 큰 슬픔과 당신과의 영원한 이별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참을 수가 없구나.
당신처럼 가족을 사랑하고, 자상하고, 누구보다도 큰 꿈을 갖고 그 꿈을 향해서 모든 것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해왔던 당신이시기에 이 무슨 날벼락 같은 불행이 찾아왔던 말입니까?
생신도 불과 며칠 앞두고 따뜻한 밤 한 그릇 드시지도 못한 채 그렇게 바쁜 길을 재촉하여 정병 어디로 떠나 가셨던 말입니까?
당신을 멀리 떠나보내던 날 하늘도 울고 땅도 울어 버렸지요.
오 하늘이여, 땅이여!
우리가 부부 인연으로 만나 한평생 파뿌리가 하얗게 되도록 백년해로하자고 맹세하여 살아하시더니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던 말입니까? 생각하오니 오직 일밖에 모르셨던 당신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당신이 이 먼 나라로 떠나신 후 매일같이 당신의 늘푸르고 자상한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고 또 통곡하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 순간에 당신을 멀리 떠나보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 삶의 의미마저 잃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당신이 너무 소중하였고, 가정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당신은 먹는 것도, 노는 것도 마다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여 오직 정성을 다 바쳐 사업이 발전하기만을 온갖 정열로 쏟아왔기 때문에 더 마음이 비통하고 서글퍼집니다.
오늘 49재를 맞이하여 당신을 이 세상 마지막 멀리 떠나보내려고 당신이 꿈쩍이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딸, 이제 아잠아잠 걷는 귀여운 손자들 그리고 한 핏줄로 태어난 형제자매들도 다 모였습니다.
어서 귀여운 아이들의 이름이나 한번 속 시원하게 불러나 보세요?
애 저 그리도 아무 말이 없던 말입니까?
왜 이리까지 무정하고 아속하게 사랑하는 가족을 멀리 두고 무엇이 그리도 갈 길이 바빠 구천하늘나라로 떠나셨던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 곁을 떠나신 것이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아요. 오늘도 힘든 하루 일과를 보내고 업무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오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답니다. 지금도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당신이 쓰다 남긴 물건을 매만지며 당신 모습 그리며 복받침 오르는 슬픔을 참지 못해 하염없는 눈물을 짓는답니다. 아들 일곱, 딸 둘 구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나 다른 형제들은 다 건강하신데 오직 당신만은 무엇 때문에 건강한 몸을 타고 나오지 못했소. 당신이 아속하게 날 두고 훌쩍 가신 것도 내 복인가요? 아내

로써 당신을 위해 제대로 내조하지 못한 부덕한 소치는 저의 잘못이라 부디 용서하시고 이제는 편안하게 쉬소서. 저 멀리 먼 나라로 먼저 가시거든 첫째는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꼭 성공하도록 잘 보살펴 주시어 당신이 이룬 사업을 오래도록 번창하여 행복한 가정 이루어도록 항상 돌보아 주소서.

여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나를 두고 먼저 가시다니.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애착하고 아끼던 사업, 일만 하시던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당신을 평생 의지하고 믿고 살려왔는데, 이제 누구를 의지하며 살라고 아속하게 그렇게 훌쩍 떠나가신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 결혼하여 신혼초에 셋방살이 전전하며 가난하게 살았던 그 시절도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는 아들 딸 큰별이고 부부정 나누며 오순도순 재미있고 멋지게 살아갈 날만 남았는데 나 혼자 외로워 어찌 살라고 무정하게 떠나셨습니까? 당신은 언제나 모범적인 가정이었기에 더욱 그리워집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큰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매일 매일 당신 사진을 보면서 당신 모습 떠올리면 밤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오직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급작스런 열반 소식을 듣고 모두 놀랐고, 너무 너무 슬퍼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상현이가 당신이 평생으로 이뤄놓은 사업을 잇기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음직한 아들이 있기에 순조롭게 잘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일구어 놓은 화려한 가정에 앞으로

백년도 못사는 인생인데...

당신을 향하는 마음 이승에서 잊을 수 없어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승에서 잊을 수 없는 신 형제들과 의논하여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하고 가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보!
당신과 만난지 삼십년이 넘는 세월은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당신을 통해 저희들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자상하고, 가정적이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던 당신에게 당신을 아는 모든 사람은 당신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내고 아울러 당신이 우리 옆에서 같이 있었다는 사실에 큰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여보!
이제 당신이 극락에서 부처님 모시고 평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만을 두 손 모아 빌어 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식들은 당신을 결코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우리가정의 행복이었고, 희망이었고, 꿈이었었습니다. 막상 당신이 떠나고 보니 당신의 자리가 너무나 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정적이고 자상하고 형제우애가 돈독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너무 염려 마세요. 당신이 계시지 않아도 화려한 가정이루고 형제지간 우애 있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당신 없는 빈자리를 잘 지킬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 부디 고이 잠드소서.

여보!
부디 부디 부처님 세상으로 가셔서 행복하십시오. 여보!
부디 부디 좋은 대로 가십시오.

총기 32년 4월 14일
아내 김영자 합장

실버취업박람회 개최

◎ 행사일시 : 2003.5.29(목)~5.30(금), 2일간 10:00~17:00

◎ 행사장소 : 강남구 삼성동 소재 코엑스 전시장 1층 대평야홀

◎ 슬 로 건 : 『일자리 마련으로 노년기를 보람되게』

◎ 참가대상

- 구 직 자 : 만 55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남·여
- 구인업체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및 기관
- 참여직종 : 55세 이상 장·노년층이 일할 수 있는 모든 직종 가능

(다단계판매 등 노인취업 부적합업종 제외)
사무직,노무직,생산직,제조업,서비스직,파트타임 근무 등
정규직 및 비정규직 모두 가능, 자원봉사 형태의 직종 등

◎ 구직희망자 : 주민등록증과 이력서 지참, 행사장 참석

(이력서는 당일 행사장에서 작성가능)

구인업체(부스무료제공)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참가신청서

◎ 접수방법 : 전화,인터넷,이메일,우편

◎ 전화접수 : 1588-1877(서울시고령자취업알선센터)

948-1353~4(서울시고령자취업알선센터)

◎ 팩스접수 : 948-1617

◎ 인 터 넷 : www.noinjob.or.kr

(서울시고령자취업알선센터 홈페이지)

◎ 이 메 일 : smsilver@hitel.net

◎ 우편접수 : 서울시 소재 노인종합복지관 및 고령자취업알선센터

◎ 접수시기 : 2003.3.20 - 5.22

◎ 연 락 처 : 1588-1877,948-1353~4(서울시고령자취업알선센터)

3707-9211~6 (서울시청 노인복지과)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비로자나불의 금강법계공, 삼밀수행의 도량 한국 정통밀교 종단 불교총지중

천년의 잠을 깨고

우리 앞에 나타난 밀교(密敎)!

법신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무언의 설법을 통하여 마음의 비밀을 깨달음으로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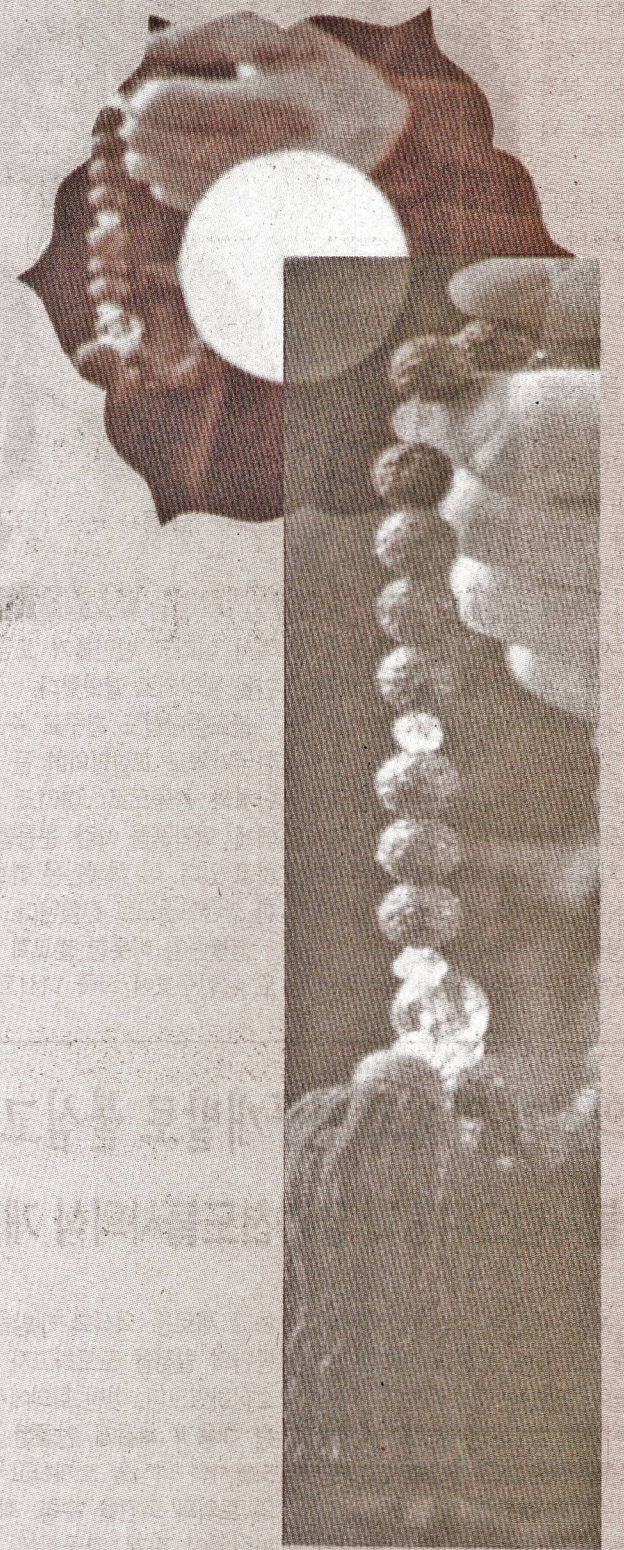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정통밀교의 승고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탁악세를 정화하고 무량중생을

고통에서 구제할 비밀의 문!

그 문의 열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총지중

Korea Buddhism Chong-ji-jong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 (02)552-1080~3

www.Chongji.or.kr

불교총지중 종령 록정

- 통 리 원 장 법 공 ■ 중앙종회의장의장 의 강 ■ 중앙종의회부의장 원 송 ■ 사 감 원 장 법 성
- 총 무 부 장 지 성 ■ 재 무 부 장 대 원 ■ 교 정 부 장 법 등 ■ 사 회 부 장 인법계
- 서울·경인교구장 해 정 ■ 충청·전라교구장 법 성 ■ 대구·경북교구장 우 승 ■ 부산·경남교구장 해 암